

KB증권, AI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간편투자 시대 연다

엔씨소프트 등과 합작법인 출범
AI 간편투자 증권사 설립 추진
데이터·자산관리 노하우 기반
엔씨소프트, AIPB 서비스 개발

KB증권이 엔씨소프트 등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KB증권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디셈버엔컴퍼니 자산운용, 엔씨소프트와 합작법인(JV) 출범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KB증권의 금융데이터와 자산관리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셈버엔컴퍼니의 인공지능 엔진인 아이작(ISSAC)과 간편투자플랫폼 프레퍼스(PREFACE)를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을 집약한 '인공지능(AI) PB' 서비스를 개발해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권사 모델로 '고민없는 간편한 금융투자'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라면서 "KB증권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KB증권과 디셈버엔컴퍼니자산운용, 엔씨소프트가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조인식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왼쪽 첫번째)가 정인영 디셈버엔컴퍼니 대표이사(가운데),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인프라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사와 협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디지털생태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디셈버엔컴퍼니에 KB증권과 엔씨소프트의 자본 참여를 통해 구성된다. 디셈버엔컴퍼니는 현재 투자일임 기반 간편투자 앱 핀트(Fint)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데이터,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추진

을 통해 종합금융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계획이다.

3사는 '간편투자'라는 고객경험을 반영한 AI기반의 금융투자 혁신을 이뤄낼 것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간편투자 증권사'가 목표다.

기존 금융투자업의 경우 프라이빗뱅크(PB)의 투자조언을 토대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추천 및 자산운용을 해주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다면, AI 간

편투자 증권사는 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실행하고, 자산관리 자문은 AIPB(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PB비즈니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자산이 중심이 아닌 대중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당 합작법인은 현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개인별 맞춤형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해 단지 자산운용만이 아닌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금융상품추천, 대출, 보험 및 지출관리까지의 전방위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결제기능 확대를 위해 전용 선불 기반 카드발급은 물론 소비상황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능동적인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관리로 축적된 잉여금을 목적자금 마련, 은퇴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투자 서비스와 연계하여 소비에서 저축, 투자로 연결되는 고객 금융생활의 콘텐츠 허브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빅테크사들의 금융진출 공식이었던 '간편송금 → 금융서비스'라는 거

래중심의 플랫폼 모델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필요한 자산조언과 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고객의 금융고민을 해결해주는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확대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KB증권은 향후 해당 합작법인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금융투자 분야에 엔씨소프트와 디셈버엔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협업한다. 여러 KB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번 합작법인 구성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자산관리서비스는 어려웠던 금융투자의 문턱을 낮추어 PB서비스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KB증권과의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진일보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기존 디셈버엔컴퍼니 자산운용에 KB증권과 엔씨소프트가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자본 참여를 통해 합작법인을 구성한다. 향후 가입고객수 1000만명, 관리자산 10조원을 목표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분양 시작

대전도시공사-현대건설 컨소
오늘 사이버 견본주택 공개
전용 59~84㎡ 총 1116가구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투시도. /현대건설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대전 '갑천1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가 8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갑천1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59㎡A 208가구 ▲59㎡B 28가구 ▲84㎡A 466가구 ▲84㎡B 196가구 ▲84㎡C 218가구 등 전체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이 중 ▲59㎡A 31가구 ▲59㎡B 2가

구 ▲84㎡A 74가구 ▲84㎡B 28가구 ▲84㎡C 31가구 등 총 166가구가 일반공급에 분양되고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은 950가구다.

교통은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이 반경 약 1.5km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도안동로, 32번국도, 호남고속도

로 지선 등의 도로망이 가까워 대전 전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에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와 도안신도시 내에 조성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 유성온천역 주변 상업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원신흥초, 봉명초, 봉명중, 서남중(예정), 도안고, 유성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받는다. /정연우 기자 yw964@

한국예탁원-벤처캐피탈협

사용자 친화적 '벤처넷' 시스템 구축 협약

144개사 회원 업무 참가 유도
투자자산 관리 백오피스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지난 6일 '벤처넷 시스템 구축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벤처넷 시스템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산 관리 백오피스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벤처넷 시스템 개발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업무 참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맺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추진하는 벤처넷 시스템 개발 및 업무 참가 ▲벤처넷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와 관련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IT시스템(공동망)을 통해 투자자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벤처캐피탈 업계에 시스템 구축사항을 알리고, 벤처캐피탈협회 144개사 회원의 업무 참가를 유도해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용자 친화적 벤처넷의 구축과 안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등 벤처투자시장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반면, 투자자산관리 후선업무는 여전히 FAX·이메일·우편·퀵서비스 등 비효율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산관리 백오피스 영역 고도화를 목표로 자산운용산업의 '펀드넷'과 유사하게 벤처투자자산 관리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벤처넷 시스템'을 구축 준비 중이다.



지난 6일 (왼쪽부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협회장이 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벤처넷 시스템 구축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벤처투자업계 공통 코드 관리 ▲운용지시 중계망을 통한 수탁기관과 운용지시서 전달·결과확인 자동화 ▲전자서명 기반의 권리증서 전자 발급 ▲투자자산 잔고대사 자동화 ▲증권회사와 연계한 투자조합 증권계좌 변동 내역의 자동 송·수신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오픈될 벤처넷 시스템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과 수탁기관 사이 투자자산 관리업무 전반의 전자화(Paperless)·실시간화·자동화를 달성하고, 업계의 백오피스 업무 비효율 및 운영리스크를 경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업계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벤처넷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벤처투자 투자자산 관리업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미래에셋운용, TIGER K-뉴딜지수 ETF 5종 상장

BBIG 기업 집중 투자
한국판 뉴딜 수혜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뉴딜 ETF 시리즈'를 상장하고 거대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TIGER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다. BBIG 산업은 차별화된 성장 모델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크게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로 구분된다.

기초지수는 KRX BBIG K-뉴딜 종합지수와 각 산업별 지수 4개로 총 5종이다. KRX BBIG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각 3종목씩 총 12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구성한다.

KR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K-뉴딜 지수는 각 10종목으로 상위 3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75%, 하위 7개 종목이 유동시가총액 가중으로 25%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BBIG 산업별 지수들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도주들에 집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추척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초지수를 완전복제방법으로 운용한다. 민간 뉴딜펀드에 해당하며 일반 주식형 ETF와 같이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